

주일의말씀

가까이 다가가십시오.

서준홍 마티아 신부
성모당 담당



성모당에 오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성모당에 오는 이들 중에는 어렵거나 힘들거나 아니면 성모님을 사랑하여 기도하러 오신 이들이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오신 분들도 있고, 여럿이 오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이들이 기도하는 모습은 참 아름다운 광경입니다. 우리 대구대교구 초대 교구장이신 드망즈 주교님은 특별히 강복한 지방에 가서 기도하면 은혜를 더 쉽고 많이 받는다고 하였고, 또 우리 교구민들 모두가 성모당을 참배하기를 권면하셨습니다(1918년 10월 13일). 그리하여 많은 신자들이 기도를 하거나, 은혜를 구하거나, 감사를 드리기 위해 성모당에 옵니다. 이들은 성모당에 와서 가장 먼저 성모님을 찾습니다. 성모님께 가까이 다가가서 기도를 드립니다. 성모님을 사랑하는 이들입니다.

그러나 성모당에 오는 이들이 모두 기도하러 오는 것은 아닙니다. 성모당을 구경하러 오는 분들도 꽤 있습니다. 성지순례를 오거나 답사를 오신 분들 중에서 기도는 하지 않고 사진만 찍고 가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성모당을 지름길로 생각하여 지나쳐가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교구청 정문으로 들어와 성모당을 가로질러 교구청 후문으로 빠져나가는 이들이 종종 눈에 띄입니다. 그 외에도 구걸을 하러 오는 사람, 물건을 팔러 오는 사람, 데이트하러 오는 사람들도 가끔씩 있습니다. 이들은 성모당에 오기는 하지만 성모님에게 관심이 없습니다. 성모님을 지나가 버립니다. 이들은 성모님을 사랑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율법교사에게 강도당한 사람의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강도당한 사람 앞에 사제와 레위인과 사마리아인

이 오는데, 그들 중 사제와 레위인은 강도당한 사람을 지나가 버리지만(ἀντιπαρέρχουσαν) 사마리아인은 가까이 다가가서(προαεδρευων) 강도당한 이를 돌보아 준다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고 나서 예수님이 “이 세 사람 가운데서 누가 강도를 만난 사람에게 이웃이 되어 주었다고 생각하느냐?” 하고 묻습니다. 그러자 율법교사는 “자비를 베푼 사람입니다.”라고 대답합니다. 예수님은 “가서 너도 그렇게 하여라.”하고 율법학자에게 이르십니다. 다시 말하자면 “가서 너도 가까이 다가가서 자비를 베풀어라.”라는 말씀입니다.

성모님을 사랑하는 이는 성모님께 가까이 다가와 기도하지만, 성모님을 사랑하지 않는 이는 성모님을 지나가 버리고 자기 일을 합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이는 주님께 가까이 다가가서, 주님을 제대로 보고 주님이 원하시는 것을 알아차립니다. 하지만 주님을 사랑하지 않는 이는 주님을 지나가 버리고, 자기 일만 합니다. 이웃을 사랑하는 이는 이웃에게 가까이 다가가 함께 하고 도와주고 자비를 베풀니다. 하지만 이웃을 사랑하지 않는 이는 이웃에게 가까이 가지 않고, 자신만 보살피고 자신의 이익과 관련된 일만 하려 합니다.

이웃을 만들려면 먼저 가까이 다가가야 합니다. 이웃을 만들기 위해 자비를 베풀려면 가까이 다가가야 합니다. 제1독서에서 모세가 말합니다.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는 계명은 힘든 것도 멀리 있는 것도 아니라, ... 너희에게 아주 가까이 있다. ... 너희가 실천할 수 있는 것이다.” 가까이 다가가는 것은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우리가 실천할 수 있는 일입니다. “가까이 다가가십시오.” 

생명에 대하여 ①

교구 사목국

하나의 사람이 될
태아는 이미
그 사람인 것이다

지난 5월 27일 헌법재판소는 재판관 전원일치로 생명윤리법(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에 관한 합헌 결정을 내렸습니다. 우리 가톨릭교회는 생명윤리법이 가지

고 있는 비윤리성과 반생명성에 대해 줄곧 지적하며 개정을 요청했지만 정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경제적, 상업적 동기와 치료의 효율성을 내세우며 결국 생명윤리법을 제정하였고 이에 현재의 합헌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이에 인간 생명에 대한 교회의 가르침을 몇 가지 기억하고자 합니다.

▲ 배아는 인간입니다.

생명 윤리법의 가장 큰 문제는 배아에 대한 정의를 왜곡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생명윤리법은 배아는 인간이 아니라 단순한 세포 덩어리로 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배아란 인간의 수정란과 수정된 때부터 착상 완료 이전까지의 분열된 세포군을 말한다.”(제 2조 3항)

도대체 ‘인간’은 언제부터 인간일까요?
중등 생물 교육을 받은 국민이라면 누구나 다 알

고 있습니다. 생명의 단위는 세포이고 그 세포가 생명의 주체라는 점을, 따라서 세포 역시 엄연한 생명체라는 사실을 다 알고 있습니다. 더구나 배아는 그 시기에 이미 한 사람의 고유하면서도 독자적인 유전 인자를 다 가지게 되고 그럼으로 한 사람의 고유한 삶(운명)이 그 때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 배아가 곧 그 사람인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누구도 예외 없이 배아였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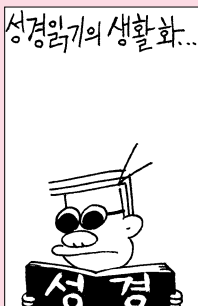
배아는 자신이 가진 유전적 특성을 경탄할 만한 생명력을 가지고 발전시켜나감에 한 사람으로서의 온전한 삶을 준비해 나갑니다. 이를 어떻게 단순한 세포덩어리라 할 수 있으며 과학적 연구의 대상으로 삼으며 마음대로 조작할 수 있다고 할 수 있는지 참으로 경악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교회 교도권은 여기에 대해 명백히 가르치고 있습니다. 인간은 임신되는 그 순간부터 한 인격으로서 인정되고 존중되어야 하며 따라서 임신되는 그 순간부터 그 배아는 한 인격체로서 지닌 모든 침해할 수 없는 권리들을 인정해야 한다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생명의 선물』 1.1)

“출생을 막는 것은 살인을 앞당기는 것이다. 출생 전이거나 후이거나 별로 차이가 없다. 하나의 사람이 될 태아는 이미 그 사람인 것이다”(생명의 복음 .61항)

이설(異說)에 현혹되지 않으려면

박성규 엘리시오





오늘의 미사

연중 제15주일

입당성가

41 형제에게 베푼 것

화답송

◎ 가난한 이들아, 하느님을 찾아라.
너희마음에 생기를 돋우어라.

복음환호송

◎ 알렐루야.

봉헌성가

211 주여나의 몸과 맘

영성체송

주님, 당신 제단 곁에 참새도 집을 짓고, 제비도 둥지를 틀어 거기에 새끼를 치나이다. 만군의 주님, 저의 임금님, 저의 하느님! 행복하옵시다, 당신 집에 사는 이들! 영원토록 당신을 찬양하오리다.

파견성가

34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주

영성의 향기

:: 기도생활의 중요성

필리피서에서는 기도에 관한 참으로 좋은 말씀이 나옵니다. “아무 것도 걱정하지 마십시오. 어떠한 경우에도 감사하는 마음으로 기도하고 간구하며 여러분의 소원을 하느님께 아뢰십시오. 그러면 사람의 모든 이해를 뛰어넘는 하느님의 평화가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을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지켜 줄 것입니다.”라고 합니다. 여기서 바오로 사도는 ‘기도’에 관하여 같은 의미로 여러 단어들을 사용하고 있는데 간구, 소원 ‘감사’ 등입니다. 이 단어들로서 말하고자 하는 것은 ‘기도생활’의 중요성입니다. 걱정근심이 가득할 때, 혼자만 그 걱정들을 끌어안고 있지 말고, 하느님께 믿음을 가지고 털어놓으라는 것입니다.



:: 감사하는 마음으로 바치는 기도

하느님에서 기도하는 우리의 사정을 잘 모르시기때문에 그분에게 사정을 알려드리기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하느님께 대한 우리의 믿음을 표현하기 위하여 청원을 드리라는 것입니다. 바오로 사도는 청원기도를 바칠 때 ‘감사하는 마음으로’ 바치라고 가르칩니다. 이 의미는 ‘감사’가 과거에 이미 베풀어진 은혜에 대한 회상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사실, 하느님께서 과거에 이미 베풀었던 은혜를 감사하며 회상할 때, 불확실한 미래에 대한 불안에서 풀려날 때가 많이 있음을 경험할 때가 많습니다. 그리고 이 평화는 ‘사람으로서는 감히 생각할 수도 없이’ 놀라운 것이며, 기도하는 사람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준다’는 것입니다.

교구 설정 100주년 기념 대성당 설계공모 안내
• 기간: 6.14(월)~9.13(월)
※ 공모요강 및 설계지침서 등 자세한 내용은
은 교구 홈페이지를 참조바랍니다.

★ 모임행사 ★

대구 생명 평화 미사

• 일시: 7.19(월) 19:30, 월성성당

빛사랑 여름 콘서트

초대가수 For와 함께

• 일시: 7.24(토) 18:00~22:00
• 장소: 예수성심사녀회 정원
• 대상: 가족, 개인, 단체, 마감: 7.18(일)
• 신청: 다음카페 luxamor486

꽃동네성소자하계수련대회

• 일시: 7.23(18:00)~25(16:00), 음성꽃동네
• 대상: 대학~35세미만, 문의: 011-464-1265

가톨릭언전기사 사도회 월례회

• 일시: 7.14(수) 14:00, 장소: 가톨릭교육원

교구 스테인드글래스연구소 봉헌 기념전

• 일시: 7.11(일)~31(토) 10:00~17:00
• 장소: 영천시대창면신광리(681(금호보당신광공소 옆))
• 내용: Stained Glass - Window, Lamp
Fused Bowl & Painting
• 문의: 054-332-4300 / 017-521-0070

★ 성소 모임 ★

예수의 까리파스 수녀회 성소모임

• 일시: 7.11(일), 매월 셋째주 토 19:00~21:00
• 장소: 만촌1동 성당 수녀원
• 문의: 010-2568-5231

곤벤뚜알 프란치스코회 여성성소모임

• 일시: 8.6(금)~8(일), 강화수도원
• 문의: 010-5064-7467

★ 파정 ★

미 사	일 시	장 소
1대리구 성소후원회 월례미사	7월 12일(월) 오전11시	계산주교좌성당
2대리구 성소후원회 월례미사	7월 12일(월) 오전11시30분	2대리구청-범어성